

Plaque Control(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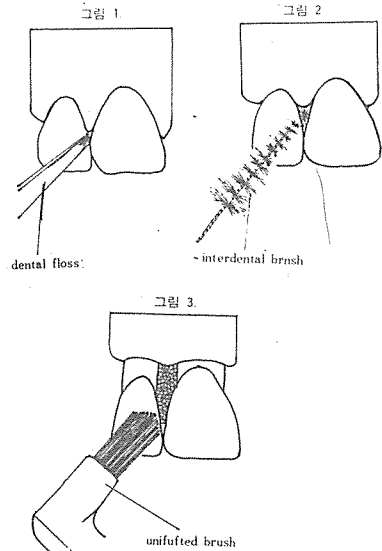
염증성 치주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plaque control은 환자가 처음 내원하였을때 부터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무조건 이를 잘 닦아야만 된다고 하면 환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므로 disclosing agent를 이용하여 치태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거나 phare contrast microscope을 이용하여 치태 안에 있는 균들을 환자에게 보여주거나 또는 환자가 내원시마다 plaque index를 측정하여 치태지수의 증감여부와 치태가 잘 제거되는 부위와 제거가 잘 안되는 부위를 평가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왜 치태를 잘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plaque control에 대해서는 환자가 치주 치료를 받는동안 매 내원시마다 계속 강조되어야 하며 plaque control이 잘 안되는 환자의 경우는 가능한 한 치주치료를 하지말고 plaque control을 환자 자신이 잘 할수 있도록 계속 강조해주어 plaque control이 잘되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 주어야한다.

치주치료후에는 치은의 염증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치은이 shrinkage되고 치간부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치간부위에는 치태가 축적되기 쉽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질만으로는 치간부위의 치태를 제거하기가 힘들므로 치간부위의 치태제거에 대해 특히 강조를 해야한다. 치간부위의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deatal floss, interdental brnsh등이 사용되며 dental floss는 치간부위가 차 있는 건강한 치은의 경우에는 좋은 효과가 있으나 치주치료후나 치은퇴축에 의해 치간부위가 넓어진 경우에는 interdental brnsh가 더 많이 사용되어 진다. interdental brnsh 사용시에는 bristle이 치간유두의 방향과 일치하게 상악에서는 밑으로 하악에서는 위를 향하도록 위치시키고 협면과 설면쪽에서 사용해야 한다(치은의 shrinkage 때문 치주치료후 치아가 지각과민반응을 일으켜 plaque control을 못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stannous fluoride, sodium fluoride를 도포하여 desensitization을 시켜주거나 또는 desensitizing agent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을 사용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plagne contal을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plagne control이 잘되는 환자도 치주치료가 끝난 후 2~3개월마다 vecale하여 환자의 plaque control 상태를 평가하고 시정해 주어야만 한다.



- 그림 1. 치간유두가 차있는 치은의 경우 dental floss의 사용이 효과적 이다.
- 그림 2. 중증도의 치은퇴축이 있는 경우 interdental brnsh 사용이 효과적이다.
- 그림 3. 심한치은퇴축의 경우 — uni-tufted brnsh를 사용한다.

정우치과기공소  
Jung Woo Dental Lab.

代表 崔 海 明

전화 765-0606, 743-66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40번지